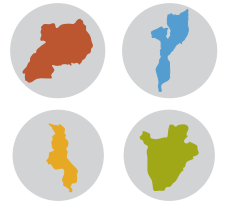


월드비전 희망학교 사업보고서 2012 - 13

희망TV SBS 와 함께하는 아프리카 희망학교 건립 캠페인



후원자님 덕분입니다.

희망TV SBS와 월드비전이 함께하는 희망학교 프로젝트를 통하여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희망찬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2012 희망TV SBS를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월드비전은 아프리카 4개 지역에 5개의 희망학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건축된 이 학교들이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의 삶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의 이야기들을 후원자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희망학교 프로젝트를 위해, 그리고 학교 안을 가득 채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위해, 후원자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영구학생들에게는 책정량이 생겼다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전에는 치마를 입고 바닥에 엎드려 글을 썼기 때문에 질문을 하거나 대답하기 위해 일어섰다 앉을 때마다 무척 불편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편리한 책정량이 모두에게 주어지서 마음껏 질문하고 마음껏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저는 커서 교육관련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에요. 이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한국의 후원자님들께 감사 드려요.”

-타다라(Tadara), 말라위 치치키 크리건 교관



“새 학교가 지어지기 전, 학교의 열악한 시설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교실이 부족해 나무 아래에서 수업을 하고,筆記도 없는 지저분한 화장실을 800여명의 학생이 사용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새 학교가 완공된 후, 우리 학교는 학부모님들과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열과 교사들의 교육의지도 한층 높아졌고요. 이로 인해 더 많은 학생들이 중등학교로 진학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도와주시는 한국의 후원자 분들과 월드비전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레비슨 치롬바(Levison chiomba), 말라위 치치키 크리건 교관 선생님

우간다 울지역 희망학교

칼라키 초등학교, 자이 초등학교, 파나 초등학교, 토로마 초등학교
Uganda Kalaki/Jai Central/ Panya Gol/ Toroma primary school

우간다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간다는 196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검은 히틀러라 불리는 독재자 이디 아민에 의해 30만명 이상의 주민이 학살되고 1986년 이래 20년 동안 심각한 내전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극심한 식량난과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고 성인 문맹률도 27.4%에 달합니다.

사업지역	아가고주 울지역
사업기간	2013년 1월 - 2013년 8월
수혜 학생 수	933명
사업예산	USD 200,000 (한화 240,000,000원)



우간다 사업담당자
Geoffrey Opra

희망학교가
생기기 전 아이들과
마을은 어떠했나요?

울 지역은 지난 20년간 반군과의 분쟁으로 학교, 병원 등 사회기반 시설이 무너진 곳입니다. 학교 교실과 책걸상의 부족은 이 지역 교육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나무로 열기설기 지은 학교 건물에는 우기 시 비가 들어치고, 추위를 막을 수 없으며 바깥의 많은 먼지를 막아주지도 못해 아동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희망학교가
생긴 후 아이들과
마을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희망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4개 초등학교에 교실과 화장실 시설을 건축하고 교과서 등을 제공하여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교사회를 대상으로 학교운영과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학교를 관리하도록 하며, 지역정부의 교육부서 담당자를 통해 교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Health Club' 동아리를 조직하여 위생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마친 후 희망학교는 정부와 지역사회에 공식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지역정부와 주민들이 교육사업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학교 관리와 발전을 위하여 논의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Before



맨땅에서 공부하는 아동들



사업전 나무로 지어진
학교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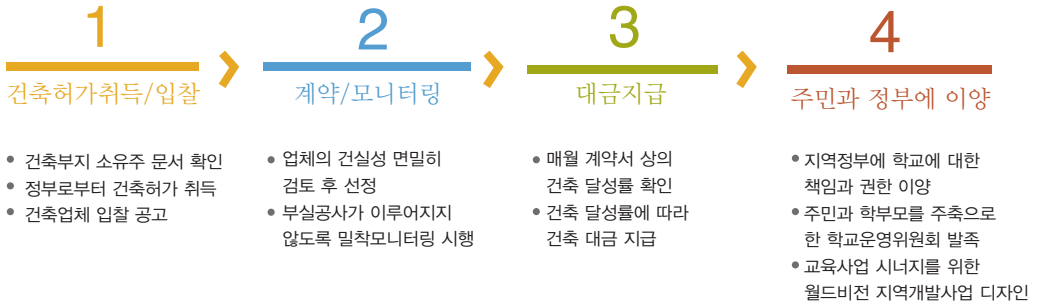
After



완공된 희망학교

학교지원 사업 들어다보기

아프리카 학교 건축의 단계



현장에서 온 편지

안녕하세요. 아이티와 스와질랜드에서 학교지원사업을 수행해 온 월드비전 국제구호팀 강도욱입니다.

월드비전의 학교 지원 사업은 크게 사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학교건축, 화장실 건축 및 기자재 제공 등이 해당되는데, 월드비전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업체 선정 과정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학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비용 절감과 동시에 지역주민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예로 레스토왕국과 같이 돌이 많은 나라에서는 돌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는 아동보호교육, 식수위생교육, 교사 훈련, 재단 훈련, 직업 교육 등이 있는데, 사업 대상 지역의 특징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혼합해 진행함으로써 사업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교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 시켜 그 효과에 지속성을 추구합니다. 아이티에 지어진 한 학교의 경우 가계 소득이 전혀 없던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건축 기술을 가르치고 실제 사업에 고용함으로써 소득창출과 기술교육을 동시에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학교는 대부분 지역정부나 교육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어진 공립학교이기에 해당 국가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와 같이 변수가 많고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모든 교육 내용을 담아 사업을 제 시간에 종료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장차 그 나라의 리더가 될 아동들에게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월드비전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NGO
WFP공인협력기관



2006 영국OWT
책임성조사 NGO중 1위



2010 호암상
사회복지상 대상수상



2010 대한민국 BSC
전략경영대상 수상



제5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수상기관

월드비전은 1950년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1억명의 지구촌 이웃을 돕는 국제구호개발옹호기구입니다.